대입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한 고교선택

2013 고교선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당장 드러난 2013 대입 지형과 그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입에 가장 유리한, 혹은 미래의 꿈을 이루는 데 가장 근접한 학교를 골라야 한다.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고교의 종류가 늘어나고 대학진학을 위한 전형 역시 3000개가 넘는 시대에 개인의 로드맵에 맞는 고교 선택은 대입 가능성을 높이는 첩경이다. 고교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잣대를 대입정책의 방향성에 두고 최선의 고교선택 전략이 어떤 것인지 따져보았다.

대입의 지형

2013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모집정원의 80%나 되는 수시를 100%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과감한 시스템이다.

서울대 입시의 선발인원 비율은 수시 일반전형(52%)-수시 지역균형선발(28%)-정시(20%)의 순서다. 입학사정관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수시는 의대가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올해 교과부의 방침과 맞물려 인성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단계 자기소개서와 서류평가는 지난해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에서 1단계를 1.5배수만 통과시킨 점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역시 합격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은 상당히 약화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특기자전형에서 자율고, 외고를 중심으로 내신이 약하지만 전공적합성이 강한 학생들의 합격사례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다. 외대부속용인외고의 경우 전교 80등까지 지난해 특기자전형에 합격했다.

결국 서울대 입시는 사정관-대학별 고사(논구술)-내신-수능 네 가지 주요 전형요소 가운데 일반전형에서는 사정관제와 구술, 지역균형선발에서는 내신과 사정관제, 정시에서 수능과 논술로 구성돼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정관제와 구술면접이 전면 배치되고 내신과 수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양새로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급변한 서울대 입시는 내년부터 예고된 대입정책의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학년부터 수능은 A/B형으로 나뉘면서 올해보다 훨씬 쉬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1부터 시작된 절대평가의 움직임이 내신의 비중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성과 열정을 기본으로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와, 약화된 내신 수능 대신 변별력으로 활용되는 대학별 고사(논구술)가 점차 대입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대 입시와 고교선택 포인트

수시중심의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유리한 집단은 어디일까. 올해 상황만으로 보면 반수생, 재수생, 시스템이 좋은 고교출신의 순서로 볼 수 있다.

동일전공의 반수생은 수시 일반전형의 특성상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 학기 정도 대학전공에 발을 디뎌 전공공부를 했던 지식과 기초체력을 통해 사정관제의 골간인 전공적합성과 난이도 높은 구술에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내신은 이미 결정 난 팩트이니 신경 쓸 필요 없고 최저등급 2등급 두 개만 충족하면 되는 수능 역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대 특기자전형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강남대성 수준의 재수생도 구술과 전공적합성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유리하다. 재수생 가운데 최상위권이 모이는 강남대성의 경우 8월까지 상당부분 구술과 전공적합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후문이다. 재수생 집단 역시 이미 결정 난 내신과 EBS 연계 이후의 수능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고 판단,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드러난 서울대 입시의 틀에 적응하는 것을 전제로 재학생들의 경쟁력도 올라갈 전망이다. 재학생 가운데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 출신이 서울대 수시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체제로 서울대 수시에 접근 가능한 고교가 고입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 학교 체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울대 입시는 사교육의 지원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시를 보면 대학별 고사를 통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해온 느낌이 강하다. 2008년 로그함수를 활용한 수리논술문제로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학원들이 수리논술을 열심히 준비시킨 2009년에는 수리논술이 출제되지 않았다. 2009 정시에는 제시문 하나에 1800자의 긴 글을 쓰게 했고 2011 정시에는 A4 7장짜리 제시문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특기자전형을 통해 선보인 구술은 사교육의 접근을 더욱 힘들게 만든 체제로 보인다. 모집단위별로 구술문제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교육의 지원을 받는 강남 일반고 자율고 출신들의 서울대 합격생은 상당부분 재수생으로 채워진 사실 역시 사교육의 대응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속도위주의 선행을 해온 대치동스타일은 내신은 보습학원, 수능은 팀별과외, 논술은 전문학원, 사정관은 컨설팅업체 식으로 분화해 수험생의 시간과 관심의 전선을 확대시킨다. 전선을 입사관과 구술로 좁혀둔 반수생과 재수생 대비 서울대 입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학생 가운데 서울대 수시에 대한 가장 큰 경쟁력은 전국단위 모집의 자율고, 자율학교들이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경험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시스템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입에서 경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로드맵과 전공에 대한 가닥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경험을 쌓아온 고입담당관들이 틀이 유사한 대입 입학사정관체제(자기소개서 서류)의 준비에서 상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1단계에서 결정적인 스토리 위주의 자소서 역시 고입에서부터 가다듬고 고입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대입사정관의 눈에 들기 쉬울 수밖에 없다.

우선 기숙사 체제의 강점이다. 개인의 열정과 잠재력 부문은 강남출신들보다 기숙학교 출신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 시간배분이나 생활패턴을 부모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독립심이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기숙사생활은 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대 구술은 로드맵을 좀더 일찍 세우고 전공적합성을 채우는 한편 텍스트 읽기를 기반으로 속도 위주의 선행보다는 두터운 밀도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로드맵이 정해진 경우 전공적합성을 위해서나 구술을 위해서나 자기주도학습의 환경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서류준비에서도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준비 역시 비교과활동이 활발한 학교 체제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자율고 자율학교는 이미 고입전형의 '학습 효과' 로 인해 대입의 서류 준비를 상당부분 학교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면서 반영해 왔다.

학교별로 진행되는 AP수업들 역시 전공적합성에서 앞설 수 있는 호재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공수업들은 선택을 잘 할 경우 반수생 못지않은 전공전합성을 쌓아갈 수 있다.

의치예 입시와 고교선택 포인트

'의치한' 은 이미 서울대를 정상에서 밀어내고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을 대거 흡수하며 독자적인 판도를 구축하고 있다.

모집인원 확대의 흐름 속에 의치예 계열 입시 역시 다양화되는 추세다. 수능 중심의 정시로 대다수의 인원을 선발해 왔지만, 수시확대에 힘입어 속속 새로운 전형이 도입되고 있다. 학생부 중심전형은 물론, 논술전형, 수학과학특기자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도 의학계열을 선발한다.

전형선택에서도 최우선 해결과제는 수능이다. 수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대학별고사, 정시에서는 수능을 주요전형요소로 삼는다. 상위권대학일수록 대학별고사가 변별력을 발휘한다. 2012학년 입시에서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개 수리가형과 과학탐구 등을 포함한 수능 3개 영역이상 1등급을 요구했다. 수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신과 대학별 고사와 관계없이 탈락한다. 수시 정시를 막론하고 수능성적부터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성적을 갖췄다면 대학과 전형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 의학계열 입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각축전이다. 다양한 요소 중 어느 하나의 결핍은 탈락으로 이어진다. 골고루 잘하면서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활용하는 대학과 전형을 찾아야 한다.

재수생의 존재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쉬운 수능' 탓이다. 의대는 전통적으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이 몰린다. 입학 전형은 수능 위주의 성적 중심 선발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를 출제하고, 한두 개의 고난도 문제로 변별력을 가르는 시도를 보였다.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의 수능 변별력이 낮았다. 실수로 인해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 재수를 선택한 상태다.

의치예 입시에서는 가장 유리한 고교를 지적하기 어렵다. 현재 의치예 입시의 핵심은 상위권 학교일수록 내신 수능 최상위권을 기본으로 해서 대학별고사에서 가름 나는 형태다.

내신이 결정된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에 집중할 수 있는 동일전공의 반수생 재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최상위권 내신을 보장할 일반고, AP수업으로 전공적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고 혹은 과학중점 일반고로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전국단위 자율고 가운데 광역으로 돌아선 해운대고 대신 상산고와 현대청운고가 의치한의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고 있다.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고교선택 포인트

해외대학 진출은 리먼사태 이후 줄곧 축소되는 분위기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해외대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데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형들(어학특기자전형 글로벌리더전형 서울대자유전공학부 수시전형 등)이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학부는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편이 인맥 등 사회적 기반을 쌓는데 유리하다는 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대학 진학이 축소된 상황에서 굳이 해외대학을 가야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해외대학 진학의 양대 산맥으로 통했던 대원외고 민사고 그리고 신흥 강자로 떠오른 용인외고가 오래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전히 강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교 진학을 놓고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이들 3강의 대안 역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사고는 재단의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교사진 이탈과 시스템 와해를 겪으면서 서울대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이고 대원외고는 아예 국제반 운영의 자원을 뽑을 수 없는 상태다. 국제반을 여전히 운영하는 용인외고 역시 초기 시스템구축을 담당했던 인적 자원이 빠져나가고 외대의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면서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

해외대학 진학 시스템은 우수한 자원에서부터 교사의 질은 물론 학교의 전폭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 민사고나 외대부속이 초기 해외유학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할 상황을 되짚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민사고는 파스퇴르의 부도 이후 학교 생존차원에서 해외유학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초기의 멤버들과 학부모 학생의 열정이 하나로 결집된 상황이었다. 이미 우수한 자원과 개척자 정신으로 뭉친 담당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민사고의 실적을 만들어냈다. 외대부속은 대원외고와 민사고의 시스템과 담당자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노력에다 설립초기 외대의 전폭적 지원이 맞물렸다. 대원외고 역시 최고의 자원들에다 학교의 시스템 그리고 학부모의 열정적인 지원과 사교육의 뒷받침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외대학 진학은 북일고와 김천고가 대안이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북일고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붇고 있다. 전국에서 남녀 30명을 모집하는 국제반 내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500만원 수준. 아이비리그 출신 외국인교사만도 15명이 24시간 상주한다. 전국에서 남학생만 28명을 뽑는 김천고 역시 다크호스다. 민사고 아이비리그신화를 만든 나병률교장이 민사고 시스템을 2년 간 110억원을 쏟아 부어 복원했기 때문이다.

/김정식 기자 copyleft@veritas-a.com